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일주일 앞으로!

9월 22~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 전 세계 복음주의자 5천 명 참석
28일까지 참가자 한 끼 후원 및 매일 기도, 로잔대회 500 기도 프로젝트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9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막 오른다.

제4차 로잔대회는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선교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축복의 장(場)이다. 전 세계 222개국에서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 선교사, 기업가, 정치인, 직장인, NGO, 예술가, 법률가, 교육자 등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CGN이 제4차 로잔대회 실행을 방영한다. 기독교 OTT '풍당', CGN 유튜브 채널과 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22일(일) 개회예배부터 23~27일(월~금) 성경 강해, 주제 강의, 저녁 집회, 28일(토) 폐회예배까지 실시간 생중계한다. 개회예배는 22일 오후 6시 30분, 성경 강해 23~27일 오전 9시, 주제 강의 23~27일 오전 11시, 저녁 집회 23~27일 오후 6시 30분, 폐회예배 28일 오전 11시 30분에 CGN 모든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표) 및 QR 참고.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후원과 기도도 이어

진다.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참가자 한 끼 후원 및 매일 기도'가 9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lausanne.kr)나 아노키(Anoki) 기도 앱에 올라오는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고 중보기도하면 된다. 매일 합심 기도문에는 로잔 초청 222개국을 위한 기도, 로잔대회를 위한 기도문 등이 쓰여 있다.

'한 끼 후원'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31401-04-303854(사단법인 한국로잔)으로 한 끼 식사 비용(2만 원)을 보내면 된다. 후원금을 보낼 때는 본인 이름 또는 교회 이름을 꼭 기록해야 한다.

한국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회 '로잔대회 500 기도 프로젝트'도 이어진다. 대회 기간인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인천온누리교회 분당(2층)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070-4940-4242)로 문의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진은 지난 7월 14일 진행된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714 기도대성회'.

CGN 제4차 로잔대회 생중계 일정

시 간	22일(일)	23일(월)	24일(화)	25일(수)	26일(목)	27일(금)	28일(토)
08:40~09:00	-	여기는 로잔					
09:00~10:00	-	Morning Session1. 성경 강해(사도행전)					
11:00~12:00	-	Morning Session2. 주제 강의					Morning Session2. (10:30~11:00)
18:30~20:00	개회예배	Evening Session5. 저녁 집회					폐회예배 (11:30~13:00)

2024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9월 29일까지 나눔 대상자 접수 및 순, 개인별 현금

2024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 접수 및 감사의 쌀 현금 봉헌이 9월 29일(일)까지 이어진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순과 개인은 9월 29일(주일)까지 쌀 20kg 한 포대 가격(6만5천원)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현금하면 된다. 현금에는 각 캠퍼스 송금 계좌로 봉헌하면 된다.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이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순에서 현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꼭 기록해야 한다(예: 한강마리아2순). 개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현금을 송금할 때 이름, 생년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예: 홍길동 850128).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 접수는 9월 29일(주일)까지 하면 된다. 1순위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 2순위 외부 기관, 3순위 외부 개인 순으로 선정한다. 나눔 대상자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의 확인을 거친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이메일을 발송할 때는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를 참조인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동체 이름과 공동체 담당목사, 대표장로 승인 여부도 밝혀야 한다(예: 중종로공동체 노치형 목사님과 이상도 대표장로님께 승인 받음). 사르밧 프로젝트 신청서는 서빙고와 양재는 이메일(서빙고: 24thanksgiving@naver.com, 양재: dbsansdb@onnuri.org),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성도들이 봉헌한 현금으로 구매한 쌀과 성경책은 10월 30일(수)부터 나눔 대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다른 캠퍼스에서는 상황에 맞춰 나눔 대상자에게 전달해도 된다. 쌀 발송을 원하는 캠퍼스는 10월 6일(주일)까지 대상자 리스트를 담당자가 취합해서 서빙고온누리교회 수신처로 접수하고,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는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Social Venture, 사회적 기업)와 협업한다. 한동대 소셜벤처에서 친환경 무농약 쌀 한 포대(20kg)와 함께 성경책을 보급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

9월 14~18일 국가별 집회, 이주민 500여 명 참석

2024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Harvest)'가 한창이다. 지난 9월 14일(토)부터 오는 18일(수)까지 국가별 집회가 이어진다. 올해 하비스트 주제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행 28:30~31)이다.

하비스트는 이주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주민 공동체 연합예배다. 페르시아, 러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등지에서

온 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를 위한 물품 후원을 받고 있다. 추석선물세트, 텀블러, 간식 등이 필요하다. 후원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9월 17일(화)까지 온누리M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8)로 물품을 보내면 된다.

문의: 010-5858-4371(최영조 선교사)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장애인 부서 예배실 이전

서빙고 신관 1층 사랑홀

서빙고온누리교회 장애인 부서인 누리사랑, 사랑부의 예배실을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지하에서 1층 사랑홀로 이전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지체들을 위해 주차장과 가깝고, 이동이 편리한 신관 1층에 예배실을 마련했다. 이름도 장애인 부서 이름을 따 '사랑홀'로 지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1층 로비에는 예수(장애인 디자인 직업훈련 작업장, 예술가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의미) 작가들의 작품과 임준형 형제(지적장애 2급)의 성경 필사본이 전시되어 있다(관련 기사 11면). 한편, 서빙고 신관 1층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갈렘홀(이전 러빙핸드실)과 침묵기도실(소망홀, 이전 Acts29실)을 마련했다. 본관 2층 Acts29홀(이전 당회실)과 장로후계실(이전 당회실 부속후계실), 신동아소풍 2층 화평홀(이전 믿음홀), 선교관 1층 믿음홀(이전 선교관 101호)은 명칭을 변경했다.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축복된 관계는 이별이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이별을 통해 더욱 성숙을 경험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별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가려면 에베소를 경유해서는 그 날짜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항구도시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기에 성도들 대신 장로들과 이별을 나누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밀레도에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해 왔는지 고백하고, 당부하고 싶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서로 무릎을 꿇고 껴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참된 교훈을 나누는 이 모습이 참된 교회이며, 살아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 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 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36~38절).

서로를 위해 평소 기도하던 관계였기에 이별의 순간 더 슬피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동적인 이별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민을 가면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해서 손을 흔들며 울고불고 했던 시대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이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에베소를 한 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마지막일 수 있으며, 오늘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난다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계속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비하면 긴 기간이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3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깊은 영향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 여정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권면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 모두 담을 수 없는 풍성한 내용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긴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권면에서 다섯 가지 중요한 사역 철학이 나타납니다. 첫째 겸손과 눈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남긴 이별

사도행전 20:17~38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19~20절).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습니다. 그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모습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가르쳤고, 많은 유대인의 음모와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말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바울의 몸을 스치기만 해도, 그가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고,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회상하지 않았습니 다. 자신이 얼마나 인내하며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은사와 능력을 통해 일어난 역사보다 얼마나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섬겼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한국 교회 최고령 목사님이셨던故 방지일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젊은 시절 중국 선교사로 섬기셨고, 영동포교회 원로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오래전에 온누리교회에도 몇 차례 오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선교 콘퍼런스에서 그분을 뵈었습니다. 아마 그때 90세 초반이셨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선교 콘퍼런스를 하는데 가장 앞에 앉으셔서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차 핑계 대고 졸고, 방에 가서 쉬고 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손사뿐 되는 강사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드렸더니 책과 함께 친필로 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기자가 목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로하셨는데도 건강하신지를 질문했습니다.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고 심장운동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은 그냥 뛰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 되느냐고 했더니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체험하고, 통회하는 눈물을 흘릴 때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장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에서 나오는 눈물의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5-6, 개역개정).

씨를 뿌리는 농부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 농사, 힘든 농사, 씨를 뿌릴 때마다 ‘내 운명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할까?’ 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씨가 뿌려진 이후 열매 맺을 것, 하나님이 추수하실 것을 바라보는 눈물입니다. 내가 생명을 심고 거둘 수 있다는 바로 그 눈물이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영혼이 구원 받고,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故 방지일 목사님의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눈에서 흘러 하늘에 가 닿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바울의 사역 원리 이면에 겸손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이 계획을 이끈다

둘째, 성령의 강권하심이 계획을 이끕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22절).

바울에게는 늘 사역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의 계획, 회당을 먼저 방문하는 계획, 로마의 군사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계획,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먼저 가고, 방문한 지역을 또 다시 방문하는 계획 등이 〈사도행전〉 전반에 나타납니다. 또 한편에 그의 계획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바꾸시는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그를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도 성령의 강권하심입니다. 이제 바울이 22절에서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상황입니다. 그가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20대였습니다. 주후 15년 경 다소에서 자란 바울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발걸음이 첫 번째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부모님 세대가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할 때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으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강제 이민을 당한 것입니다. 다소라는 지역은 길리기아의 수도인데, 로마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4천 년 전통의 유서 깊은 도시였고, 많은 철학자가 있고, 문화가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1세기에 가장 교육열이 높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소를 무시하지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별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사명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과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이별이었습니다.”

못했습니다. 다소의 어떤 리더십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의 가족도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리더십이 되려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사두개인은 귀족 출신이어야 하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될 수 없었고, 자신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가지고 20대에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하에서 수학했고, 인정받는 바리새인으로 성장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세 차례 전도여행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의 나이가 60대가 되었습니다. 40여 년이 흐른 것입니다. 주후 56년경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자신의 꿈을 위한 것이었지만, 두 번째 방문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더 강하게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계획을 바꿔서 다른 계획으로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강권하심에 우리의 계획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연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명을 위해 생명을 드린다

셋째, 사명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23~24절).

생명을 다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도록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려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니 너는 피해라”고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인격적인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정보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셔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한다”며 목숨을 조금도 아끼워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상황과 환경, 고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는 앞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늘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명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는 사람은 때로 육신의 생명이 희생될 지라도 영적 생명을 이루는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희생을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기쁘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순교의 신앙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라

넷째,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 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 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 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

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28~32절).

‘양떼를 돌보는 것 이전에 자신을 잘 살피라’의 의미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만 봅니다. 앞서 가는 양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휩쓸립니다. 양은 바로 앞 양 뒤꽂무니에 머리를 향하고 앞서 가는 양이 가는 대로 갑니다. 가장 앞서 있는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면 뒤따라가는 양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피야 합니다. 예수님의 핏 값으로 사신 양떼들을 목자가 가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목자 되신 그분을 먼저 따르는 양으로서 잘 따르고 있는지를 살피야 합니다. 그것이 양떼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짓 선생들,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이리떼 같은 선생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로잔대회가 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거짓된 사상, 사회적 성을 부르짖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유주의 사상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양떼를 잘 지키고,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섯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별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악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33~35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까지, 몸과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바울은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 믿는 이들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면 믿음에 장애가 될까봐 손수 생활비를 벌어서 사역할 만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받는 자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는 자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받는 자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는 자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되기 위한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다섯 가지 바울의 사역 철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의 사람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주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별은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사명을 남겼습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가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과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이별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지만 남은 우리에게 육신의 이별을 통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로잔운동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세계 교회와 함께 세계 복음화의 자리로!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마이클 오 · 이재훈 공동조직위원장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개최의 의미는 복음의 절박한 필요성은 여전한데 오히려 복음을 떠나는 이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다시 복음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증언과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려는 간절한 기도요, 헌신이요, 순종의 발걸음이다. 그러나 세상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 등으로 급변하며, 여전히 전쟁과 갈등과 기후 위기 등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급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로 하여금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로잔운동은 성령의 권능(행 1:8) 없이는 불가능한 도전이다.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며 동역해 온 두 인물을 만났다. 국제로잔운동의 마이클 오 총재와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다. 이들은 이번 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으로 그 역할과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두 사람을 서면으로 만났다.

/ 편집자 주

제4차 로잔대회 준비를 위해 많은 분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분은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역할을 감당해 오셨는데 주의 일을 준비하는 자의 감사 또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회 준비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마이클 오: 제4차 로잔대회 개최를 위해서 한국로잔위원회를 비롯해 전 세계에 걸쳐 30개 이상의 팀이 준비 과정에서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값진 노고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어 이 일에 자원해서 참여했습니다. 자기 일과 생업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사역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는 그들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개최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훈: 한국로잔위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됐을 때, 사실 염려가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돼 이 대회를 섬기는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한국 교회가 이 대회로 인해 더욱 성숙하고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또한 제가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서서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위원장이신 유기성 목사님을 비롯해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분들과 동역하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됐고, 모든 염려가 사라졌으며, 지금은 감사와 기쁨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최 국가가 국제본부와 공동 개최하며, 특히 아시아 교회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아시아 지도자들이 지난 어느 대회보다 많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함께 준비하는 대회가 된 것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마이클 오 총재님은 국제로잔운동 총재로



다년간 섬기고 계신데 로잔이 하는 일에 대한 소개와 그동안의 사역에 대한 소회는 어떠십니까?

마이클 오: 2013년 3월 1일부터 국제로잔운동을 이끌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넬슨 만델라의 추모식에 참석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부터 이집트, 콜롬비아, 네팔, 호주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며 놀라운 사역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로잔이 하는 일은 4대 비전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이에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적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적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6천여 미전도 종족이 있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생명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기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가 세워지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어

진 도전은 ‘HIS’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HIS는 겸손(humility), 진실성(integrity), 단순함(simplicity)을 뜻합니다.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들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선교 전략은 없습니다. 넷째는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1%의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로잔운동의 비전은 이 인원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사가 예술, 언론, 과학, 기술과 같은 분야까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사회 모든 영역으로 뻗어 나가는 것은 나머지 99%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저는 그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사를 감당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세계 교회 및 세계 선교와 더 나은 네트워크 형성을 원하고, 더 효과적인 리더십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섬기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 동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로잔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별히 제4차 로잔대회의 역사적 의미와 소명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이재훈: 로잔운동은 1910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함께 모인 에든버러 선교대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운동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선교 운동’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도전하는 ‘교회 갱신 운동’입니다.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선포자와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전문인 선교 운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 교회와 선교 단체, 그리고 전문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선교 플랫폼 운동’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는 로잔운동 5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3차 로잔대회 이후 전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후 환경의 위기,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위기, 성혁명으로 인한 창조 질서의 붕괴 위기, AI 시대를 대처하지 못하는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가장 최악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교회 또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고 북미대륙 교회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서구권 교회들이 선교 운동에 더 많이 헌신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에서 모이는 제4차 대회를 통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지 못했던 선교적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기에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를 바라보면서 두 분이 깨닫고 품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재훈: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꿈’, 특별히 한국을 바라보며 꾸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907년 평양대부흥을 허락하신 뜻은 한국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귀하게 쓰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이는 평양대부흥의 지속적인 열매입니다. 이제 2024년 제4차 로잔대회를 섬기는 계기로 시작된 말씀과 기도 운동이 다시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선교적 각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 몇 년 전, 뉴욕에서 한 사업가에게 로잔대회의 비전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 사업가는 “이 비전의 10%라도 실현이 된다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상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이뤄지는 걸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세계는 이번 대회에 대한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완수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와 어떤 전략적 격차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사회의 각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오늘날 우리 세계의 가장 큰 격차와 도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꿈은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라틴 아메리카인 등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만함, 이기적인 목적, 혹은 권력 불균형 없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제4차 대회의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그 의미



와 목적은 무엇이며,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소망과 비전과 도전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이재훈: 이 주제는 로잔대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잔대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 운동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교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라는 믿음과 ‘교회’가 선교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선교 신학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교회가 함께 이를 위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전 로잔대회보다 더욱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 신학’을 정립함으로써 자유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인 신학의 흐름에 저항하며, 교회의 선포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복음주의적 적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표어입니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는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는 거로 생각했던 패러다임이 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미래의 선교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의 선교입니다(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번 대회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영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비전과 부르심을 일깨우는 대회입니다.

마이클 오: 제4차 로잔대회의 주제에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도구이자 그분의 신부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때 하나님의 사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신실하게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세상은 강력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된 대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과 규모로 참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재훈: 대회 기간(9/22~28) 동안 매일 오전 성경 강해 시간이 있을 것이고,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에 따라 매일 중심 주제가 정해집니다. 즉

성령의 오심, 선교적 공동체, 핍박과 선교사역, 일터와 세계 선교, 섬기는 종으로서의 리더십, 땅끝을 향한 복음 전도입니다. 오후에는 이 주제에 관련한 패널 토의 등 깊은 토론이 이뤄집니다. 매일 저녁에는 세계 교회로부터의 성찰(Reflection)들이 발표됩니다.

특히 목요일 저녁에는 한국 교회에 대한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소그룹 나눔을 통해 참석자들이 개인적인 적용과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특정 대륙이나 나라에 치우치지 않도록 강사들을 배분했습니다.

또 5천여 명의 대회 참석자는 지난 로잔운동 참석자들이 추천한 분들을 각 지역 대표들과 국제본부의 선정위원회에서 분야 대표성과 참여 비율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원하는 모든 분이 참여하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로잔운동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각 영역의 대표자들이 참여한다는 가치를 지켜 가고 있습니다. 이미 200여 국가에서 5,100명이 등록했으며(7월16일 기준) 교회가 있는 나라라면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참여도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소그룹 등 현장 참여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는 <서울 선언>이 정리돼 대회 마지막 날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이클 오 총재님은 <서울 선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더불어 국제로잔은 4차 로잔대회 이후에도 ‘Lousanne 4 Journey’라고 해서 2024년을 시점으로 해서 2050년까지 여러 사역이 예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 대회 이후 국제로잔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클 오: <서울 선언>은 이전 대회에서 나온 세 문서인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서약>을 기초로 합니다. 이 문서들은 모두 지속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다룹니다.

이 성명서의 주요 우선순위는 첫째,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언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지자들의 선포처럼 <서울 선언> 문서가 강력한 회개의 부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 신실하고 유용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문(gate)입니다. 또한 우리가 글로벌 교회로서 세상에 행동과 축복을 가져오는 데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를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메시지는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는 복잡한 사람들의 삶에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성경적이고 예언적인 목소리가 <서울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행동과 전략적 협력의 도약대입니다. 이 모든 것은 9월에 출범할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통해 지원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글로벌 사명을 위해 기술의 축복을 잘 관리하고자 합니다. 21세기에 20세기 해결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회 이후 주요 행사는 2026년 라틴 아메리카에서 열릴 제4차 청년 지도자 모임입니다. 이 모임 역시 제4차 로잔대회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동원해서 그분의 글로벌 사명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2050년의 세계 모습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재훈: 한국 교회가 국내 교회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하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 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우리가 세계 교회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 어떤 협력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4차 대회가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설교 네트워크와 중보기도회 등을 통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제4차 로잔대회를 중보기도해 왔습니다. 많은 대상을 품는 기도인 만큼 그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넓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전 세계 교회를 품고 기도했기에 사역의 지경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또한 세계 선교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 발표하신 마펫 선교사님은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해 기대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서 가장 복음화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아마도 중국과 일본 심지어 러시아까지를 포함하는 열강 제국에 영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극동 지역의 영적 대국(spiritual power)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펫 선교사님의 이러한 기대는 이미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차 로잔대회 이후 한국 교회는 극동 지역을 넘어 세계의 영적 대국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 전체가 선교에 목숨을 걸고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목회와 신학> 9월호에 게재된 스페셜 인터뷰를 전재했습니다.

/ 글 백성우 편집장, 사진 정화영 기자·국제로잔 제공



노동형 목사
(충청로공동체)

2024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도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추석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누는 뒤 검소한 선물들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감사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경배와 찬양 40장).....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요한일서 5:4~8.....	가족 중에서
설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참된 예배자.....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주 믿는 사람 일어나(새찬송가 357장, 통일 397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참된 예배자

들어가는 말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

지만 그 ‘승리’는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항상 승리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와 성경 안에는 승리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공

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승리와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은 거짓으로 속고 속이는 것, 죄와 악이 분별없이 남용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생명을 이겨낼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의심 없이 믿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 하지 말고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진리로 모든 것을 이겨내신(요 16:33)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얹어매고 힘들게 하며, 대적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요 8:32).

믿음을 사용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임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마 16:16, 롬 10:10).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해줍니다.

나아가 이러한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실한 기쁨과 감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마 9:1-8, 막 7:35-37, 롬 8:37).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예배자의 삶을 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고 싶어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요 4:23-24).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하며,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나아가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배로의 초청을 믿음’을 전제로 시작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확신할 때, 우리는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응답하며, 기록하고 정결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왕의 잔치에 초청되었으나 거절하여 참여하지 못하거나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아 잔치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마 22:1-14).

나가는 말

2024년 추석을 맞으며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꿈을 꾸게 되길 소망하고, 그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정해지는 ‘믿음의 비전’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그리스도이심을 의심없이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거하심을 통해 우리가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자유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나누기를, 그래서 남은 인생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 · 모 · 예 · 배

추모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	시편 121:1~8.....	다같이
찬송	비둘기 같이 온유한(찬 187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빌립보서 2:5, 마태복음 11:28~30.....	가족 중에서
설교	남은 인생동안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세요.....	설교자
찬송	온유한 주님의 음성(찬 529장).....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사랑했던 가족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추억들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남은 인생 동안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세요

들어가는 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온유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 마음을 직접 만난 예언자 요나

요나는 부드럽지 못한 마음 때문에 원수 앓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거친 생각과 모난 말투로 성질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풍랑이 이는 바다 속에 빠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하심으로 ‘나는 너를 사

랑하기에 죽음으로부터 너를 구원하려고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받아들여 형제를 용서한 요셉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와 인신매매, 거짓과 심적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타향 살이하며, 타민족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억울한 죄인이 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악과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했습니다(창 50:15-21).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하셨습니다(민 12:3).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나일강

에 버려졌고, 40세까지는 이집트 궁전에서 살았지만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히 11:24-26).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불평과 절망이 있었지만, 모세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희생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도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높이 있거나 높아질 수 있으면서도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비천해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가는 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 부드럽고 정다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 5:5). 온유한 사람이 받을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왕하 20:19)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귀한 것을 모두 보여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날이 이르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왕하 20:17~18, 개역개정).

이 말씀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며, 자신이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 선하다고 반응한다. 이 반응은 자신만 무사하면 문제없다는 태도처럼 보여 무책임해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열왕기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되어 바벨론의 사신들이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 말씀을 보면 전후 사정이 더 명백해진다. 바벨론 사신의 방문은 히스기야의 병이 회복된 직후가 아니라 그의 병이 회복되고, 앗수르(앗시리아)의 군대가 물러난 그 다

음이다(대하 32:31).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을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교만해져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다(대하 32:24~26).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것은 두 번의 기적이 연거푸 일어났기 때문이다. 죽을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막강한 앗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주셨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열방에 높아졌고, 그가 교만해졌다.

열왕기 기지는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히스기야의 병과 바벨론 사신 방문 사건을 바로 연결했다. 역대하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교만이 바벨론 사신의 방문 때 다시 드러났음을 시사하는 것 같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모든 좋은 것을 보여준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 역대하 기지는 바벨론 방백들의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대하 32:31). 히스기야의 교만을 다시 드러

내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는 자신의 교만이 재차 드러났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과거 자신의 교만이 드러났을 때 회개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히스기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 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선하다”라는 반응은 무책임한 반응이 아니다. 자신의 교만에 대한 또 다른 회개의 고백일 수 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회개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시대에는 내려오지 않은 은혜를 두 번째 교만을 드러냈을 때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가 심판의 예언을 통해 자신의 교만이 두 번째 드러남에도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며, 자신의 시대에 태평하므로 선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 히스기야의 고백은 미래 시대의 고통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

님이 정하신 심판의 기일이 다가오기까지는 오늘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히스기야가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교만을 용서해주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만과 어리석음과 죄악을 아낌없이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받기에 형편없는 우리와 대조적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를 값없이 그리고 끝없이 용납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한다.



이은일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언약을 갱신하고 순종의 삶으로

9월 16~22일
〈느헤미야〉 9:1~11:9



묵상포인트 1: 회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진정한 회개란 말씀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갈급한 마음으로 세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세 시간 동안 기도하는 공동체, 언약을 지키기로 굳게 다짐하는

공동체에 어떤 은혜와 변화가 따르는지 묵상하자.

▶초막절을 지낸 후 백성이 모여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한다. 그들은 낮 세 시간 동안 율법을 듣고, 이후 세 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 회개 기도를 레위인이 주도하는데, 그들은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한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으며,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율법을 등지고 그분을 거역했다. 하나님이 주

신 복된 땅에서 ‘타락과 심판과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반역의 강도가 심해졌다. 결국, 하나님은 반역하는 완고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열방의 손에 넘기셨다. 귀환한 백성은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악행 때문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며 언약을 갱신한다.

묵상포인트 2: 말씀 순종에는 실제적인 결단과 변화가 따라야 한다. 귀한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한 것들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느헤미야를 비롯해 백성의 지도자들이 언약에 서명한다. 언약 갱신 의식에 참여한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으며, 안식일과 안식년 규례를 지키기로 한다. 또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성전세를 3분의 1 세겔로 감면하고, 제단에 쓸 나무를 바치며, 첫 열매와 십일조를 드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묵상포인트 3: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 성벽 완공 이후 예루살렘을 성읍다운 성읍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지도자들과 백성이 마음 모아 행한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을 관리

하고 지켜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지도자들과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중 일부가 예루살렘에 남고 그 밖의 사람들은 유다 자기 성읍에 거주한다. 예루살렘 성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진정한 성읍의 모습을 회복해 간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귀환한 백성은 세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세 시간 동안 기도해 전념했다. 나는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말씀 묵상이 깊은 회개로 이어지도록,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도록 힘쓰자. ▶고난을 당할 때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불순종을 돌아보며 회개하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자. ▶이스라엘은 ‘타락과 심판과 구원’의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셨다. 죄인 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자.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일이라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실천하자.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섬길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쁘게 헌신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동생을 위해서!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생은 빚을 갚기 위해서 매일 늦은 밤까지 일하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매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무릎 통증이 다시 생겼습니다. 동생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일하는 동안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재부가 일하던 중에 다리를 다치게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부의 다리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상황으로 인해 가정 안에 잦은 다툼과 불평 등으로 동생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동생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일수록 동생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동생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동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생을 통해 그 가정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부천온누리교회 JDS(예수제자학교)
베트남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그 사랑을 맞보아 알기 위해 JDS 선교 여행을 떠났다.

‘αγαπαω= AGAPAO=사랑하라’, 헬라어 명사 ‘아가페’를 동사형으로 바꾸면 ‘아가파오’가 된다. 부천온누리교회 JDS 5기 베트남 아웃리치팀이 이 단어를 마음에 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35절 말씀을 따라 7월 첫날 아웃리치 출발을 알렸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마약센터에서 만난 청년들의 눈빛이 웬지 섰다. ‘복의근원교회’에 속한 마약센터 담임 목사님 또한 17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마약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며, 마약 중독자들과 고아들을 돌보고 계셨다. 마약센터에서 만난 한 형제는 마약을 하며 음란하고 진리 없는 일상을 살았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 지금은 교회 예배 인도자로 사역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함께 예배드리고, 이어진 위십(SUM) ‘가장 높은 곳에서’를 하면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를 고백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약이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우리의 섬김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다.

사파에서 세 시간가량 떨어져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간 신수어이호마을에는 살아있는



부천온누리교회 JDS 아웃리치팀이 베트남 교회에서 위십을 하고 있다.

복음의 간증이 있었다. 높은 산자락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대마초를 먹고 살았는데, 라디오로 필리핀의 복음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을 전체가 복된 소식을 알게 된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그곳에 신수어이호교회가 있다. 주민들이 영혼 구원을 받고, 함께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명과 서로의 비전을 나누며 ‘기독교관마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석 위에 세워진 허우타오교회 또한 높고 험한 길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 그곳은 목사님과 성도 17명이 3년 동안 직접 돌을 옮기고 길을 만들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과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길을 밟는 여행자들을 위한 그들의 신실함 앞에 숙연해졌다.

‘팀하노이(TIMHANOI)’와 함께 한 베트남 아웃리치의 백미는 베트남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나눈 것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여성 사

업가로서 성공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던 한 여성과 만남이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던 그녀는 어떤 것에 기대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여성에게 함께 있던 자매님의 간증을 전했다니 복음이 들어갔다. 그순간 그분의 마음이 요동하며 알고 있던 가치관과 부딪히는 모습과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웃리치에서 돌아와서도 그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드린 주일예배에서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다정하고 사랑 가득하게 다가오신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시 119:63)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친구가 되었고, 그분이 모든 담을 허무셨음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랑의 소낙비를 내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길로 인도하셨다. 친구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지고, 나의 삶과 베트남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지세나 성도
(부천온누리교회)

여호수아청년부
베트남

여호수아청년부가 대전온누리교회, 영종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와 연합해서 베트남 호찌민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연합 아웃리치팀 이름은 ‘러비엣(‘Love’와 ‘Vietnam’의 합성어로 베트남을 사랑한다는 뜻)’이었다. 베트남 선교사님이 직접 지어주셨다. 러비엣 아웃리치팀은 베트남에서 청년 고아원과 야학 사역으로 자립 가능한 현지 리더를 세우겠다는 선교사님의 비전을 따라 센터 보수 사역을 했다.

러비엣팀은 아웃리치 두 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서 베트남 아웃리치를 열심히 준비했다. 중간에 설계자와 시공자, 이송민 목사님이 합류하면서 인원 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야학 사역은 간식 및 선물팀, 위십팀, 레크리에이션팀으로 나뉘서 준비했고, 센터 보수 사역에는 모든 팀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역할을 정하면서 아웃리치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의 기도와 오랜 준비 기간을 가졌지만, 베트남 현지 상황은 예기치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입국 과정에서 수화물에 문제가 생겨 수월하지 못했다. 후원받은 아이들 선물이 조사에 들어갔다. 베트남어를 할 수 없던 우리는 손짓과 발짓, 번역기를 총동원해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고, 선의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우리의 간절한



베트남 호찌민 아웃리치팀이 베트남 아이들 앞에서 위십을 하고 있다.

이 통했는지 별 탈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촘촘한 수사망으로 분실된 수화물이 추적된 사건 등을 겪으면서 베트남이 공산국가임을 실감했다.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 만난 선교사님 부부는 모든 사역에 진심과 열정으로 임하셨다. 선교사님들은 베트남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음악 아카데미, 강의실, 기숙사 공간 마련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이셨다. 여러 건물 중에서 최종 선택된 시안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시공팀

이 연합해서 베트남 센터 보수 방향을 정했다. 이후 현장 사진 및 기본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재해석한 현재 건물의 설계 도면이 완성됐다.

그런데 센터 보수 사역에서 문제가 생겼다. 현지인들에게 민원이 들어와 계획했던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적인 허가 과정이 필요해서 보수팀이 현지 업체와 최종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 견적에 관한 미팅을 했다. 현지 업체와의 미팅 자리에서 우리는 업체 대표이사과 부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치열한

베트남 현지에서의 삶을 듣게 되었다.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며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그 업체에서 우리가 소개한 선교사님의 사정을 알고 안타까워하셨다. 우리의 간절함이 다시 한번 닿았는데 그 업체에서 저렴한 인건비와 자재비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감사하게도 녹음 스튜디오 바닥 마감 및 방음재도 기증하신다고 했다. 선교사님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러비엣팀이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유럽의 선교 시발점이었던 빌립보교회처럼 이곳 베트남 교회가 복음 전파에 의미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지로 사용되기를 다 함께 기도했다.

러비엣팀은 한마음으로 선교사님 부부를 축복하고, 그들 모두가 베트남 땅에서 온전한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야학과 고아원 아이들이 한국을 기억하고, 가진 꿈을 펼치기를 응원하고 축복했다.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만나 다시 한번 은혜 나누기를 꿈꾼다.



유단희 자매
(여호수아청년부)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사역공동체
인도네시아

위로받고, 누리며, 행복한 시간!

청년부 시절 아웃리치를 끝으로 결혼 후에는 갈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 가정사역공동체에서 5년 만에 가는 인도네시아 람퐁 아웃리치 광고를 봤다. 기도하면서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람퐁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다행히 의사로서 의료봉사에는 마음이 열려있던 남편이 승낙해서 초등 1학년인 딸 해나와 함께 우리 가족이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위심팀장을 맡기셨다. 위심을 가르친 경험이 전혀 없어서 부담이었지만 순종했다. 안무 숙지를 완벽하게 해야하기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열심히 연습했다. 위심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시키셨는지를 깨달았다. 사실 우리 부부는 최대한 서로 부딪치지 않으려고 함께하는 시간을 줄였었다. 위심 연습을 할 때를 제외하고 한 공간에서 서로 무언가를 함께 하며 신나게 웃은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다. 하나님이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셨다. 남편과의 심리적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감사했다.

가정사역공동체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다. 이번 아웃리치에도 4세부터 중등 3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층 자녀들이 함께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선교사님을 도와 의료사역과 주민사역, 그리고 흠 케어 기도사역을 했다. 아이들이 주민사역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위십댄스를, 남자



가정사역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인도네시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이들은 땀별에서 현지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했다. 모든 아이가 덥고 낮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어울리고 즐거움으로 사역에 임하는 모습이 감동이었다.

낮선 곳에서 적응이 느린 해나도 나와 함께 주민사역에 동참하며 현지 아이들과 만들기를 했다. 신앙이 없는 남편이 사역하는 동안 어떤 마음일까 궁금해서 의료사역하는 곳에 갔다. 남편의 표정이 밝았고,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었다.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아

웃리치이기도 하고, 남편과 딸이 즐겁게 사역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 정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기 이틀 전부터 해나가 42도까지 열이 나기 시작했다. 설사와 구토를 반복하는 장염에 걸리고 말았다. 약을 먹고 하루 정도 지켜봤는데 다음 날에도 열이 내리지 않고 탈수 증상이 있었다. 선교사님과 함께 1시간 거리에 있는 마르디아루요 기독교병

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람퐁 선교 초창기부터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병원이다. 그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검사하고 수액을 맞았다.

하나님은 아웃리치 기간 나의 기도제목이었던 희미해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도했다. 그러면서 해나가 아픈 이유를 알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었다. 해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많은 분의 간절한 기도와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마음이 벅찼다. 많은 분의 오랜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병원에서 해나가 치료받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도 감동이었다. 병원에 있으면서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증인 된 삶을 보면서 감동과 도전이 되었다.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보다 위로받고,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꼈다. 아웃리치 기간 내내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게 하셨다. 우리 팀원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김지은 성도
(가정사역공동체)

양천공동체
일본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

양천공동체가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치바현 ‘이치카와 복음기독교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도현, 오은주 선교사님 부부와 오래전부터 공동체 결연 선교사로 기도제목과 섬김을 나누왔다. 2017년에는 러브소나타 동경과 아웃리치 등을 함께하기도 했다. 이도현, 오은주 선교사님 부부는 이치카와 복음기독교교회를 약 20년 동안 섬기고 있다. ‘교회를 낳는 교회’를 기도제목으로 내세우고, 일본 땅에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계신다. 올해 5월에는 일본 기후현에 7번째 개척교회인 ‘기후 미야마 복음 기독교교회’를 세웠다. 나와 아내는 지난 5월 ‘기후 미야마 복음 기독교교회’ 개척예배에 다녀왔다. 교회 개척이 많은 분의 기도와 눈물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양천공동체 아웃리치 장소를 이치카와 복음기독교교회로 정하고 함께 준비했다.

올해 양천공동체는 기존과 다르게 ‘문화선교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 아웃리치’를 지향했다. 두 가지 주제를 정했는데, 하나는 ‘K-Food Festival, 내 양을 먹이라(요 21:17)’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작은 음악회를 통한 예수전도, 최고의 행복 연주’였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본인 20여 명을 초청하기로 했다. ‘K-Food Festival’에서는 떡볶이 등 간단한 음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이 잣죽, 샐러드, 전(해물전, 부추전, 김치전),



양천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일본 거리에서 찬양하고 있다.

잡채, 떡 불고기, 비빔밥, 식혜 등을 준비하고 하셨다. 한국에서 직접 가져간 도자기 식기에 담아 대접했더니 진정한 K-Food Festival이 되었다. 그 음식을 드신 일본 사람들에게 ‘최고의 행복 복음 전도’에 대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는 초기에는 ‘우리 능력으로 과연 가능할까?’ 고민했다. 그런데 교회 챔버 단원인 권사님의 수준 높은 첼로 연주와 무거운 아코디언을 흔쾌히 가져오신 집사

님의 연주, 플루트 연주를 준비하신 장로님 부부, 전문 피아노 반주자를 섭외해서 근사한 음악회를 마련했다. 작은 음악회에 참석할 일본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연습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전도 축제 행사가 끝나고 초청자 다수가 그 다음 날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복음의 불모지에 내린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같았다.

이번 아웃리치를 돌아보면 인상 깊은 일이 많았다. 공동체와 순 가족들의 많은 기도와 헌

금, 일본 전도를 위해 일본어를 한글로 적어 찬양을 암송하던 그 마음, K-Food Festival을 한국에서부터 준비하고 에어컨도 없는 교회의 좁은 식당에서 흘린 구슬땀과 수고, 교회 장식을 위해 알록달록한 색깔의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고 꾸미던 사람들의 땀방울, 전도지〈최고의 행복〉을 일본어로 전달한 장로님의 열정, 초청대상자들과 함께 드린 주일예배의 감격, 그들과 함께 장로님의 ‘창조주 하나님’ 강의를 들던 믿음의 씨앗들, 이송 과정에서 준비물이 파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꼼꼼히 포장하던 손길, 낯선 사람에게 말도 못 붙이던 우리가 노방전도와 버스킹을 하며 다윗처럼 뛰면서 춤을 추고 큰 소리로 찬양하던 기쁨 등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던 천국의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K-Pop 등의 영향으로 공동체 규모에서도 K-Food와 K-음악회 등 문화를 접목한 러브소나타 형식의 아웃리치가 가능했고, 매우 효과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통해 믿음이 깊어지고, 위로받고 돌아온 시간이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일본 복음화의 큰 물결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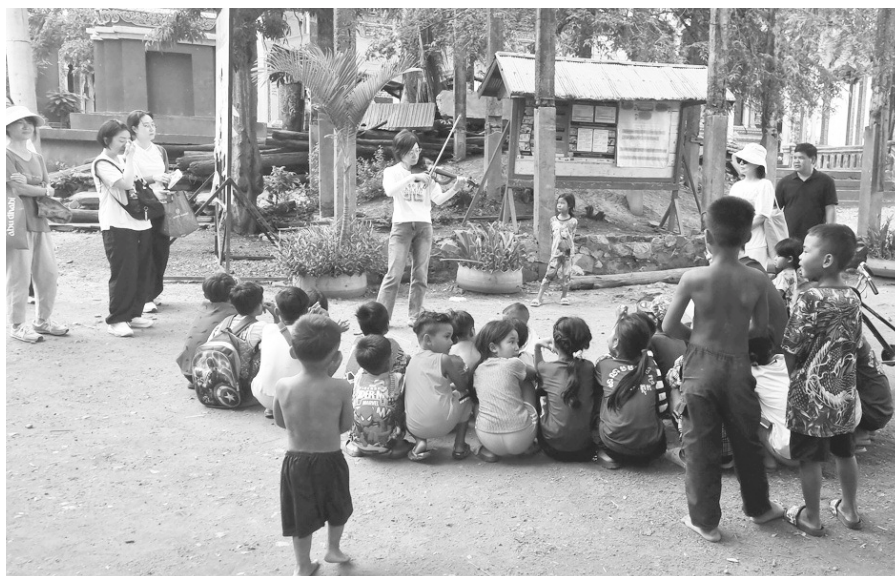
김정훈 집사
(양천공동체)

양재 JDS(예수제자학교)
캄보디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다!

지난 반년 동안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 건강한 줄로만 알았던 나는 가슴에 조그만 혹 하나가 생기면서 암 환자가 되어 버렸고 그동안 왜 뛰는지도 잘 모르고 치열하게 달려왔던 나의 짧지도 길지도 않은 46년이란 인생이 모두 물음표가 되어 돌아왔다. 지난해 말, 일대일제자양육이 끝나갈 때쯤 받게 된 암 진단은 그동안 해오던 모든 일을 정리하며 JDS(예수제자학교)라는 새로운 문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해주었다. 깊이 있는 수업과 간증, 찬양과 기도로 새롭고 다채로운 믿음의 관계들을 맺었다. 두려웠던 항암치료는 감사와 은혜로 채우며 버텨낼 수 있었다.

아웃리치 전 스무 번의 팀 미팅으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두 달을 지냈지만 매일이 축제가었고, 감사였고, 기쁨의 만남이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첫 아침 모임 준비 중에 가방에서 남편의 차 키를 발견했다. 사실 차 한 대를 남편과 같이 쓰고 있고, 내 키는 몇 달 전 집에서 잊어버리고는 못 찾고 있어서 남편 키를 같이 쓰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차 키를 발견한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지며 가족들 걱정이 밀려 왔다. 남편에게 급하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팀장님 핸드폰으로 남기고 아침예배에 참석했는데 웬지 모를 눈물이 자주 쏟아졌다. 내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묵여있었던 마음이 자주 올라왔다. 나도 모르게 덮어놓았던 놀림의 마음들을 알게 하시고, 묵



서진희 성도가 캄보디아 아이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다.

인 것을 풀어주시려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다. 예배 후에 바뀐 상황은 없지만 자유함이 느껴졌다. 처음에 느꼈던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신기하게도 싹 사라지고, 별걱정 없이 캄보디아에서의 첫날 사역을 마치게 되었다. 그날 오후 늦게서야 남편이 ‘차 키 찾았음. 걱정 말고 잘 지내다가 와’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또 한 번 울컥하며 그동안 남편에게 불편했던 마음들이 감사로 채워졌다. 그렇게 아웃리치 첫날 내게 묵인 것을 풀어주겠다

는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몇 번의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되었다. 더운 날씨와 더불어 연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이었지만, 참 귀중한 시간이었다.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저소득층 아이들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도 모르고, 처음 그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좋아하셨다.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나의 짧은 연주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사실 내가 더 크게 감사한 것은 바이올린

소리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것이었다. 선교사님은 3년 전 사랑하는 22세 딸을 떠나보내고 가족들과 떨어져 하나님만 바라보며, 캄보디아 아이들의 아버지로써 외로움을 버텨가며 사역하고 계셨다. 선교사님이 몇 곡의 찬양을 바이올린 연주로 부탁하셨는데 그 곡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 나의 대단하지 않은 연주가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평가와 경쟁 속에 묶여있었던 나를 위로해 주었고 오랫동안 멈춰있던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내게 용기를 주었다.

캄보디아에서 누린 8일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오직 기쁨의 딸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조이 캄보디아팀’에 보내셔서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다. 하나님만 순수하게 구하는 믿음의 자매들과 함께하며 동일하지만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보고, 만났다. 다만 한가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낙심되기도 하지만, 나를 먼저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



서진희 성도
(양재온누리교회)

강동 동서울B공동체
베트남

잊지 못할 그 귀한 시간

지난해 강동온누리교회 동서울A공동체에서 베트남 봉파주 지역이 있는 ‘수엔목교회’를 다녀왔다. 우리는 모든 사역을 은혜롭게 마쳤고 작별 인사를 할 때 ‘범원방 프엉’이라는 여학생이 내게 다가와 ‘선생님 카톡해요’라고 말했다. 그날부터 1년 동안 계속 수엔목교회 소식과 학생의 교회, 학교생활을 서로 나누며 2024년 아웃리치에서 꼭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올해는 동서울B공동체에서 베트남을 가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청했다. 그런데 마음의 부담과 아웃리치를 갈 수 없게 가로막는 많은 대적에 의해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후회되었다. 하지만 다른 공동체에서 주최하는 아웃리치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기다리는 프엉에게 못 간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려 주셨다. 아웃리치를 일주일 남기고 베트남 아웃리치에 참가하게 되었다.

첫 사역 날 교회 마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프엉과 어머니에게 달려가 포옹하며 재회의 감격을 나누었다. 그리고 첫 사역인 한국 음식 대접을 위해 주방에 들어갔다. 프엉과 어머니도 따라 들어와 함께 도와주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웃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함께 음식을 완성했다. 100명 넘는 성도들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한



강동온누리교회 동서울B공동체가 베트남 어린이들과 예코백 꾸미기 활동을 하고 있다.

국 음식을 대접했다. 정말 맑고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받아 가는 현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에는 기도 세미나를 했다. 안사무엘 목사님과 통역하는 한나 자매가 함께했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간증과 기도제목을 말하기 시작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함께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뜨겁고 은혜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 합심해서

눈물로 기도한 베트남 수엔목교회 성도들의 기도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난해 수엔목교회 성도들의 기도제목 중 하나가 목사님을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그 기도가 응답 돼 올해 목사님이 부임하셨다. 다시 만나자고 하였던 휘 전도사님의 기도도 응답되었다.

어린이사역은 지난해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진행했다. 주방 건물 2층에서 예수님 키링, 왕

관, 예코 가방을 만들고, 3층에서는 줄넘기, 제기차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참가한 예지와 함께 예코백 꾸미기를 담당했다. 예시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천으로 된 가방 앞뒤에 매직펜으로 그리고 색칠해서 꾸미는 활동이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예지 덕분에 든든했고, 어린이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교회에서는 미용사역을 섬겼다. 피로와 더위에 지친 베트남 여성 성도들에게 ‘Cool Tea tree mask pack’을 해드렸다. 베트남 여성 성도들에게 시원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번 베트남 수엔목교회 아웃리치에서 팀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을 경험했다. 수엔목교회 영혼들과 팀 사역 가운데 기쁨 부음이 넘쳤다. 베트남의 복음화와 현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셨다. 프엉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잊지 못할 귀한 아웃리치였다.



하상아 성도
(강동온누리교회 동서울A공동체)

사랑홀 첫 예배 감사 행사 및 로비 갤러리 현판식

이재훈 위임목사, 손성희 대표, 누리사랑 성도 등 100여 명 참석

서빙고온누리교회 장애인을 위한 예배 공간 ‘사랑홀’이 신관 1층에 새롭게 마련됐다. 지난 9월 8일(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 첫 예배 감사 행사 및 로비 갤러리 현판식’이 있었다.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 김요성 목사,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이자형 장로 등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손성희 대표(재단법인 담,故임준형 형제 모(母))와 유가족, 누리사랑 성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을 모아 좋은 장소에 장애인 부서의 예배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장애인 부서 지체들이 사랑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휴식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1층 로비에서 갤러리 현판식이 있었다. 현판식에서는 예순 작가들의 작품과 임준형 형제(지적장애 2급)의



지난 9월 8일 서빙고 신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갤러리 현판식.

성경 필사본을 공개했다. 임준형 형제는 2023년 11월 2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랑부, 사랑챔버 소속 성도다. 생전에 늘 성경을 필사하던 고인이 소천 나흘 전 마지막으로 필사한 <요한복음> 14장을 현판으로 제작했다.

임준형 형제의 모친 손성희 대표가 장애인 부서 예배 장소 마련을

위한 헌금을 했다. 손 대표는 “지난 해 준형이를 천국에 보내고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드리면서 사랑을 마련을 위한 헌금을 하게 됐다”면서 “늘 기쁨과 사랑이 충만했던 준형이처럼 사랑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콘텐츠로 세상에 말하다!’

CGN 장기 기획 다큐멘터리 기획안 공모전

CGN이 ‘콘텐츠로 세상에 말하다!’를 주제로 장기 기획 다큐멘터리 기획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선교(선교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기획 다큐)’, ‘사회 이슈 및 트렌트(사회 이슈와 트렌트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풀어낸 기획 다큐)’, ‘기타(인물 또는 공동체, 지역, 문화 사역 등을 조명하는 기획 다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으로 크리 스티언만 참여할 수 있다. 대상 1팀

(300만 원), 2등 1팀(100만 원), 3등 2팀(50만 원)을 시상한다. 9월 29일까지 장기 기획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공모하면 된다. 1차 당선작 발표는 10월 11일, 2차 PT 발표는 10월 말, 최종 선정은 11월 초에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기획안은 2026년 방송을 목표로 제작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문의: 02-796-9800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CGN 신규 콘텐츠 ‘너답게’

기독교 OTT ‘풍당’과 유튜브 채널

CGN 신규 콘텐츠 ‘너답게’가 지난 9월 8일(일) 첫 선을 보였다. ‘너답게’는 성숙한 복음의 증거자로 거듭나고 싶은 성도들을 위한 콘텐츠다. Q&A 형식의 10~15분짜리 영상이다. 초신자부터 모태신앙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질문에 신앙적인 해석과 답변을 명쾌하게 들려주는 콘텐츠다.

CGN 신규 콘텐츠 너답게 1회에

서는 김관성 목사(울산 낮은담침례교회 담임, ‘낮은 데로 가라’ 저자)가 출연해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 설명했다.

임병선 목사(용인제일교회),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CGN 신규 콘텐츠 <너답게>는 기독교 OTT ‘풍당’과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265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265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신길교회 1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0만 원이다. 265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등을 주제로 김성중 교수, 황규복, 김숙경 부부 강사, 김의수 센터장, 이법석, 이연숙 부부 강사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양재 헬로맘 스쿨 개강

양재 헬로맘 스쿨이 개강한다.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성도, 아이를 양육 중인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양재 헬로맘 스쿨에서는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부부의 성’ 등을 주제로 박은정 교수, 윤마리아 목사, 이수인 교수, 박현숙 사모, 강영수 원장, 이기복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 02-570-7349

일본어예배본부 ‘키즈 페스타’

일본 어린이, 부모 등 400여 명 참석

일본 어린이 전도축제 ‘키즈 페스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주제로 지난 9월 7일(토)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렸다. 일본 어린이와 부모, 일본어예배 성도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키즈 페스타에서는 찬양, 게임, 가스펠 래퍼 공연, 연극, 설교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아이들을 위한 푸드 코너와 게임기를 설치했다.

일본 선교 위한 ‘하이브리드반’ 참가자 모집

10월 15일부터 매주 화 현장 및 온라인 강의

일본 선교를 위한 글로벌일대일 제자양육 교육프로그램 ‘하이브리드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5일(화)부터 12월 3일(화)까지 저녁 8시 현장(10월 22일, 12월 3일) 및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일본어로 일대일제자 양육이 가능한 성도, 2회 이상 일대

일제자양육 경험이 있는 성도다. 이번 하이브리드반 교육에서는 일본어예배 목사 및 일본 7개 비전교회 목사가 강의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6일(일)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10-4528-5479

/ 홍하영 기자

21기 이주민 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21기 이주민 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21기 이주민 선교학교는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24(위너스 21-2 빌딩 4

층)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이주민 선교의 성경적 관점’, ‘이주민 선교의 역사적 관점’, ‘이주민 선교의 문화적 관점’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3388-3974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코트디부아르에서 ‘PRS(공동체 성경읽기)’

NGO 더멋진세상이 지앤앰글로 별문화재단과 협력해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PRS(Public Reading of Scripture, 공동체 성경 읽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코트디부아르 PRS 사업’은 지난 1월 16개 지역

196개 그룹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매월 신규 그룹이 생겨나서 현재 213개의 그룹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다음세대들의 참여도가 높다. 매월 1천 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통일선교학교 2기 수강생 모집

10월 5일부터 매주 토 오후 7시 30분 온라인

통일위원회 통일선교팀에서 ‘통일선교학교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통일선교학교에서는 통일 관련 주제 강의, 현장 아웃리치, 토크쇼 등이 이

어진다. 통일선교학교 2기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로 등록할 때는 이름, 성별, 소속, 출생년도, 교재 수령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회비는 교재 포함 3만 원.

문의: 010-2951-1322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한 손에는 사랑, 한 손에는 복음’

복음의 사각지대 찾아가는 ‘오병이어공동체’



신섭 장로
(사회선교본부
오병이어공동체)

65세 인구 1천만 명 고령화 시대에 독거 노인이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독거노인이 약 40만 명을 육박한다. 그중에서 30%가 고독사를 우려하고 있고, 노인 우울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정의 붕괴로 가족의 돌봄 없이 경제적 빈곤에 처하고, 소외된 어르신들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인생의 석양에서 병들고, 빈곤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그들이 바로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병들어서, 가난해서, 못 배워서, 교회에 정착하기 힘들어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과 관심이다.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알게 해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오병이어공동체’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오병이어공동체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임을 발견하고, 인생의 석양에서 힘들음을 이겨내고,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돕는 공동체다.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적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떡과 말쑼을 선물하는 공동체다. ‘한 손에는 사랑,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사회선교본부의 오병이어공동체다.

오병이어공동체는 2019년 어느 추운 겨울 시작되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독거노인



들의 영혼 구원을 일념으로 손을 내민 게 그 출발이었다. 처음에는 28명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400명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섬기고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와주시리라 믿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모아 복음을 가르쳤다. 섬김이들(오병이어공동체 스태프)은 준비모임 때마다 “한 영혼을 사랑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역을 했다.

오병이어공동체 예배에 오시는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나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아집을 부려 우리를 다소 힘들게 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서서히 다듬어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교회에 오실 때면 목욕을 하시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신다. 성품이 많이 변하였고, 예배자로 서가고 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오병이어공동체는 삶 자체가 광야인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밥을 드리는 공동체다.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다가가서 친

구가 되어주는 공동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공동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늙고, 병들고, 가난한 독거노인들이다. 돈이 없어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부 보조금과 간혹 폐지를 수집해서 팔아 얻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종교시설이나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분,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했거나 생이별한 분들이 많다.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삶을 근근이 이어가는 분, 외로움이 가장 무섭다고 말하는 분, 소망이 없고 홀로 죽을 수도 있어서 많이 우울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분들이 오병이어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있다. 마음이 가난한 어르신들이 온누리교회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고, 양육 과정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신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성령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느낀다.

예수로 행복한 인생 선물하는 ‘오병이어공동체’

복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역칼럼



이상오 총무
(사회선교본부
오병이어공동체)

내가 정년퇴직할 무렵,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시며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다. 그 이후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전심을 다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병이어공동체로 부르셨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르고 있다.

오병이어공동체는 소외된 어르신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서 천국 소망을 품게 하는 사역이다.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밥을 해주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이다. 2019년 2월, 교회에서 소외된 이웃

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지급하는 구제현금 1천 원을 받아 가는 어르신 중에서 28명을 초청해 복음을 전하는 ‘오병이어스쿨’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오병이어공동체의 시작이었다.

오병이어공동체는 5년밖에 안 된 신생사역팀이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 매년 여러 차례 세례식(매년 25명 집례)을 하고 있고, 외롭고 아픈 어르신들에게 전화로 위로하며 복음을 나누는 ‘복음심방’도 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에는 맞춤형 일대일제자양육(매년 25명 수료) 과정을 연다. 어르신들이 인생의 석양에서 복음을 붙잡고, 천국 소망을 품도록 돕고 있다. 어르신들이 오병이어스쿨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있다. 오병이어스쿨을 통해 어르신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큰 감사를 드린다.

오병이어공동체는 올해 9월 기준, 400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이지만 예배와 찬양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고 계신다. “제가 번 돈입니다!”라며 정성이 담긴 헌금을 하는 분도 있고, “봉사에 참여하고 싶는데 성도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묻는 분도 있다. 맞춤형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교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인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간증을 들려주기도 하신다. 한 어르신은 “87년 인생을 살면서 나를 안아준 곳은 이곳이 처음입니다”라면서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신다. 휠체어를 타면서도 한결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받은 선물을 자신 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께 드리기도 하신다.

“사랑한다”는 일회성 말로는 그분들을 이토록 변화시킬 수 없다. 그분들 입장에서 지속적

오병이어공동체에서는 잔잔한 감동이 늘 일어난다. 어느 어르신은 “약과 질병과 외로움으로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그 힘들음을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고백하셨다. 한 어르신은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또 한 어르신은 “이제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다”면서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장난스레 타박을 주시며 예수님 만난 기쁨에 자주 춤을 춘다. 곰팡냄새 나는 지하에서 홀로 사시는 한 어르신은 “내겐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천국 소망이 있어서요. 이것이 매일매일의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하셨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친구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고백하신 분도 계신다. 어르신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섬김이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온누리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다.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라서 자랑스롭다.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한다. 사회선교본부 오병이어공동체는 밥만 주는 공동체가 아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복음을 선물하는 공동체다.

우리가 하는 소외된 자를 향한 섬김이 이 땅의 모든 교회로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함께 참여해서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같이 써 내려가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가 낮은 자들에게 예수로 행복한 인생을 선물하기를 기도한다.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 많아지기를 오늘도 꿈꾸며 기도한다.

인 관심과 사랑을 드려야 한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랑과 공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가능하다. 오병이어공동체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다. 포천과 김포, 안양 등 먼 곳에서 불편한 하리와 무릎을 붙잡고 오셔서 섬겨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도 계신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라”(막 6:37-38)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다.

복음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병이어공동체에서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이 귀한 사역을 함께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을 찾는다.

문의: 010-7636-6305

멘토가 멘티에게

“하나님 믿고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우리 인생의 답이 정해져 있나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주신 비전, 길, 배우자 등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우리 인생은 어떠한 답을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풍성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깨달을 때 감탄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인생이 된다.

먼저 비전과 길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그 비전이 나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의 비전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또는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다 보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생의 답’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과연 ‘각자의 배우자가 정해져 있을까?’ 생각해 보자.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어찌

령 안에서 생각과 태도,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질문자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질문자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라는 말인가?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여 넣으며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 둘째,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과 성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의 여정과 같다. 그 믿음의 여정은 징검다리를 하나 하나 건너는 것과 같다. 때로 돌 하나하나에 발을 내딛기가 두려울 수 있다.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나를 삼키는 것 같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손잡아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능히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 비록 발이 물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라.

이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좌측 우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소개하고 싶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에 또 다른 꿈이 생겼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사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의대에 진학했고, 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섬기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축복한다.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란다.



김준태 멘토
(남양주온누리교회)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긍정적인 예외 상황 발견하기

관계가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다.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담한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다시 누릴 수 없다” 등 자신의 결혼 생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확신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 상태에서 부부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예외 발견하기’다. 우리에게 가장 낙담이 되는 순간은 주어진 불행과 슬픔이 영원할 거라는 불안감을 느낄 때이다. ‘항상’, ‘평생’, ‘늘’이라는 수식어가 자신의 불행과 결합할 때 우리 삶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도 끝이 있고,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갖는 게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불행이 계속 지속할 것이고, 과거의 행복을 다시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확신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 대부분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더라도 조금의 만족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부각 될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흡사 거대한 바위를 깨뜨리는 과정과 같다. 거대한 바위를 깨뜨리는 작업을 보면 큰 바위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틈을 만든다. 다음, 작은 틈에 정을 넣고 힘을 모아 망치질하면 거대한 바위는 쉽게 쪼개진다. 그렇게 나뉜 바위는 여러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재료로 사용된다. 예외적 상황을 찾는 것은 바위를 깨는 작업과 비슷하며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 예외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고 예외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 “이제 끝났다”는 부정적인 확신을 가졌던 결혼 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에서 긍정적인 예외가 생각난다면 희망도 함께 가질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낙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

어떤 부부가 갈등이 심해서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상담을 받을 때는 관계가 좋아지는 듯했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곤 했다. 부부의 가장 큰 불만은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이었다. 더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지 오래되었다. 상담사가 이렇게 물었다. “서로가 너무 맞지 않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서로가 잘 맞는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는가?”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극에 달했기에 잘 맞는 점을 쉽게 말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을 때, 부부는 한 가지 맞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부부는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할 때는 손발이 맞는다고 했다. 서로 싸울 때가 많지만 동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랜 시간 손

발을 맞춰기 때문에 협업이 된다고 했다. 상담사는 이 부부에게 그래도 예외적으로 잘 맞는 협업 장면에 집중해 볼 것을 권면했다.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때로 잘 맞는 작은 점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그나마 서로가 마음에 맞는 작은 점을 보면서 부부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문제에 잠식되었던 시각을 바꿀 수 있다. 부부가 갈등 상황에 봉착하면 갈등만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다. 위대한 지도자는 실패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보도록 팀원들을 격려한다. 현실에서 좌절하고 낙심만 하는 팀원들이 시각을 바꿔 손바닥만 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게 위대한 리더의 역할이다. 부부의 갈등 상황에서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부부 사이에 있었던 긍정과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상황이 절망이더라도 변화의 기대를 줄 수 있는 부부의 긍정적인 예외 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셋째, 자신과 배우자의 변화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누군가 지속적으로 잘했던 한 가지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준다면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부분에서 잘했더라도 칭찬보다 비판과 비난만 하면 위축

되고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다. 칭찬은 잘했던 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많은 부분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잘한 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부부는 갈등 상황에 놓이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비난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찾고 질책하면서 부부 관계가 더욱 경직되고, 단절되기 쉽다. 갈등이 심각한 상태의 부부가 의지를 들여서 ‘긍정적인 예외’를 발견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갈등을 뒤집을 기회를 얻게 된다. 예외적으로 발견되는 배우자의 긍정적인 면을 확대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부부는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이 오르지만 그래도 내가 지난번 아팠을 때 약은 건네줬잖아?” 정도의 긍정적인 예외 상황이

라도 기억해 본다면 보다 나은 부부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생활에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예외 상황’을 기억해 보면서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신동아 쇼펍센터 3층(302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온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한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두란노몰팀 웹, 모바일, SNS 디자
이너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광진구 동서울유통센터(강변
역 테크노마트)
기간: 9월 27일까지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영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6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시온팀 의료진 모집
모집: 치과(사역 시작 9월)
내용: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균 팀장(010-3388-533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1, 3주 주
일 연습은 10월부터 재개)
장소: 서빙고 온누리청소년수련관 청소
년프로그랩실II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김미현 010-8285-6435
CMN 마노아팀 의료진 모집
일시: 10월, 11월 셋째 주일 오후
*10월 20일 동두천 아프리카예배
*11월 17일 평택 인도네시아예배
분야: 산부인과 진료(여의사) 1명
문의: 류기선 팀장(010-2468-2755, 문
자 먼저 연락)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온라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가족예배 10:30 B2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09:00 B2 분당 / 2부 11:30 B2
분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분당 행복한하나예
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외국어예배 중국어예배 14:00 B1 소예배실 / 힌디
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 네팔어예
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3F 꿈아이홀 / 유치부
11:30 3F 꿈이들을 / 유년부 11:30 2F 드림홀 / 초등
부 11:30 4F 비전홀 / 중등부 11:30 교육관 3F 믿음
홀 / 고등부 11:30 교육관 3F 소망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텐
젤라홀 / 초등부 11:30 길보튼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스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2부 11:3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30 백향목홀(3층), 꿈팡(초등부)
11:30 알렐루(2층), 꿈팡(유년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텐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승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이포들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오کل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abasi Chuuku Osakasi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	---	--	--	--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감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연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재산 김용태 김요식
김은혜 김재석 김세중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팔 김태홍 김태일 김한국
김현실 김홍우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온 박성배 박성주 박전중
박형준 배현삼 배성우 배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우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이윤재 이현재 이준규 이찬우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영재 이재정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성철 정연상
정한호 정한석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보람 조현수
진민기 최대훈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용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하원희 황진연

●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호
신주용 송예찬 유성하 이상욱
이호준 이형복 임동현 정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중균 김중영 김대주
김혜경 네트라 김대우 김현철
박씨마 백순현 비 킬 서영철
생애애 사가르 양현수 윌엘세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스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제인랑
장광석 정옥진 정요한 최정현
최정현 최정현 최정현 최정현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김도일 구필모 권대식 권예람
권평화 김가희 김기태 김도태
김동규 김동우 김만순 김미리
김요셉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동미 나가노
마사토 남 해 문진영
박미애 박 성 박성훈 박요한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력
방이연 방진아 서예찬 서은섭
손위결 송영호 송선애 심은섭
안무택 양현도 영명덕 오성광
이도일 이웅준 이우희 이만규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윤길문
윤석무 윤조현 윤종연 이나단
이진수 이준영 이미진 이민규
이반석 이선혜 이소라 이시라라
노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재용
이진수 이준영 이주영 이현준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진숙
장건우 장영주 장미연 장미정
정성원 정성민 정영연 정은영
정찬중 제영민 조민희 조수정
조우현 조은식 조우현 최규중
주승환 차선일 최강주 최은영
최민정 최명훈 최 은 최은영
최혜정 한은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승기 황세라

● 사역장로

강경국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민지 권영성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강경선 강관근 강기호
김관식 김남일 김병중 김병철
김병훈 김상섭 김석인 김진태

● 협동목사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성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진 김종성
김종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정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이상권 노재환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홍실 문현하 박 공 박방익
박봉래 박홍근 박성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국 박영태 박영배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대성 박홍근 배 문 배남인
박승웅 박호현 박홍기 박병선

서정원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송한기 송만식 송영배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상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우현 양제호
안태진 양성연 우광범 임나수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지운 윤석우 윤영우 윤기환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자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용
이상기 이상덕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상철 이영경 이영하
이우곤 이웅대 이창로 이재경
이재우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수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영 이한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수 이창호 정강희 장영준
전구영 전정하 정경무 정대용
정도영 정문규 정병규 정보민
정승훈 정영연 정영화 정재택
정재원 정영철 정영태 정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조
정희원 조창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전영우 최도성 최정민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정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욱 한갑수
한규주 한태준 한백진 한영희
한종태 한창적 한철식 함국희
함선호 허광수 허형석 호종일
홍기범 홍태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호 황해남 황영호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 사무장로

강기홍 강은철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종도 강창재
강태욱 강종태 강대아 강영주
이현규 이준우 이준우 이준우
이현규 이준우 이준우 이준우
임상범 임희일 임태달 임태달
임호영 임희일 임희일 임희일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영호 정상기 정영섭
정현식 정현수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승하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조성태 주재광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서민
최성원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식 최현수 최호림 최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주 한상규 한필규
함일상 함정철 하 경 하대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종선
홍용우 리상원 류기범 류성룡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영관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환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하 서정호 서광재 서두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태 손대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선 신재영 신철우 신하철
신현승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심하은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양 홍 양성철 양준호 양준경
양홍식 양현영 오 명 오범규
오상목 오성훈 오성택 오이식
윤대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상철 이서일 이상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 협동목사

이영근 이원장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훈우 이태열 이학일 이혜달
이현규 이흥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희일 임태달 임태달
임호영 임희일 임희일 임희일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영호 정상기 정영섭
정현식 정현수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승하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조성태 주재광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서민
최성원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식 최현수 최호림 최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주 한상규 한필규
함일상 함정철 하 경 하대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종선
홍용우 리상원 류기범 류성룡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영관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환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하 서정호 서광재 서두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태 손대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선 신재영 신철우 신하철
신현승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심하은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양 홍 양성철 양준호 양준경
양홍식 양현영 오 명 오범규
오상목 오성훈 오성택 오이식
윤대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상철 이서일 이상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 협동목사

이영근 이원장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훈우 이태열 이학일 이혜달
이현규 이흥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희일 임태달 임태달
임호영 임희일 임희일 임희일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영호 정상기 정영섭
정현식 정현수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승하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조성태 주재광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서민
최성원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식 최현수 최호림 최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주 한상규 한필규
함일상 함정철 하 경 하대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종선
홍용우 리상원 류기범 류성룡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영관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환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하 서정호 서광재 서두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태 손대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선 신재영 신철우 신하철
신현승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심하은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양 홍 양성철 양준호 양준경
양홍식 양현영 오 명 오범규
오상목 오성훈 오성택 오이식
윤대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상철 이서일 이상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 협동목사

이영근 이원장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훈우 이태열 이학일 이혜달
이현규 이흥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희일 임태달 임태달
임호영 임희일 임희일 임희일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영호 정상기 정영섭
정현식 정현수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승하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조성태 주재광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서민
최성원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식 최현수 최호림 최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주 한상규 한필규
함일상 함정철 하 경 하대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종선
홍용우 리상원 류기범 류성룡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영관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환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하 서정호 서광재 서두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태 손대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선 신재영 신철우 신하철
신현승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심하은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양 홍 양성철 양준호 양준경
양홍식 양현영 오 명 오범규
오상목 오성훈 오성택 오이식
윤대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상철 이서일 이상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 협동목사

이영근 이원장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훈우 이태열 이학일 이혜달
이현규 이흥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희일 임태달 임태달
임호영 임희일 임희일 임희일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영호 정상기 정영섭
정현식 정현수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승하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조성태 주재광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서민
최성원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식 최현수 최호림 최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주 한상규 한필규
함일상 함정철 하 경 하대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종선
홍용우 리상원 류기범 류성룡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영관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환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하 서정호 서광재 서두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태 손대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선 신재영 신철우 신하철
신현승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심하은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양 홍 양성철 양준호 양준경
양홍식 양현영 오 명 오범규
오상목 오성훈 오성택 오이식
윤대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상철 이서일 이상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 협동목사

이영근 이원장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훈우 이태열 이학일 이혜달
이현규 이흥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희일 임태달 임태달
임호영 임희일 임희일 임희일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영호 정상기 정영섭
정현식 정현수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승하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조성태 주재광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서민
최성원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식 최현수 최호림 최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주 한상규 한필규
함일상 함정철 하 경 하대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종선
홍용우 리상원 류기범 류성룡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영관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환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하 서정호 서광재 서두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태 손대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선 신재영 신철우 신하철
신현승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심하은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양 홍 양성철 양준호 양준경
양홍식 양현영 오 명 오범규
오상목 오성훈 오성택 오이식
윤대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상철 이서일 이상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 협동목사

이영근 이원장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훈우 이태열 이학일 이혜달
이현규 이흥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희일 임태달 임태달
임호영 임희일 임희일 임희일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영호 정상기 정영섭
정현식 정현수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승하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조성태 주재광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서민
최성원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식 최현수 최호림 최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주 한상규 한필규
함일상 함정철 하 경 하대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종선
홍용우 리상원 류기범 류성룡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영관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환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하 서정호 서광재 서두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태 손대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선 신재영 신철우 신하철
신현승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심하은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양 홍 양성철 양준호 양준경
양홍식 양현영 오 명 오범규
오상목 오성훈 오성택 오이식
윤대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상철 이서일 이상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 협동목사

이영근 이원장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훈우 이태열 이학일 이혜달
이현규 이흥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희일 임태달 임태달
임호영 임희일 임희일 임희일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영호 정상기 정영섭
정현식 정현수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승하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조성태 주재광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서민
최성원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식 최현수 최호림 최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주 한상규 한필규
함일상 함정철 하 경 하대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종선
홍용우 리상원 류기범 류성룡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영관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환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하 서정호 서광재 서두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태 손대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선 신재영 신철우 신하철
신현승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심하은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양 홍 양성철 양준호 양준경
양홍식 양현영 오 명 오범규
오상목 오성훈 오성택 오이식
윤대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상철 이서일 이상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 협동목

Seoul INCHEON 2024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주관 방송사 CGN · **풍당**에서 시청하세요



로잔대회 기간 중 매일 다뤄지는
주제를 소개하고, 전일 대회 내용을
리뷰하는 프로그램

방송 시간 9월 23일~28일 오전 8시 40분
출 연 손범수 아나운서, 장동민 교수,
성남용 목사



길갈의 열두 돌(수 4:4-7)을 테마로,
10명의 프리젠테가 한국 교회사
역사적 사건과 인물 열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국 선교를 소개하는 총체극

방송 시간 9월 26일 오후 6시 30분
출 연 유기성, 이규현, 한기채 등 10명

로잔대회기간 CGN 생방송 편성표

	22일(일)	23일(월)	24일(화)	25일(수)	26일(목)	27일(금)	28일(토)
08:40 ~ 09:00		생방송 여기는 로잔					
09:00 ~ 10:00		성경강해 사도행전					
		성령강림	선교적 공동체	핍박과 선교	일터사역과 세계선교	섬기는 리더십	땅끝까지 왕되신 예수를 전하자
11:00 ~ 12:00		주제 강의					
		부 흥	선교적 공동체	핍박과 선교	일터사역	섬기는 지도력	10:30 ~ 11:30 그리스도의 왕되심
18:30 ~	개 회	세계 교회로부터 얻는 교훈들					11:30 ~ 13:00 폐 회
		회개 정의, 환경	기쁨 로잔 50주년 집회	성찰 기독교 핍박	새로움 한국교회의 열두 돌	화해 정치, 갈등, 변화	

